

군산시 축제위원회 회의록

I. 일 시 : 2026. 4. 17.(금), 16:00 ~ 18:00

II. 장 소 : 군산시청 상황실(4층)

III. 주요내용

- 2025년 축제 개최 결과보고(4개부서 / 5개축제)
 - * 관광진흥과(시간여행축제, 짬뽕페스티벌), 도시재생과(우체통거리손편지축제),
 - 떡거리정책과(수제맥주&블루스 페스티벌), 농촌지원과(퐁당보리축제)
- 2026년 축제 발전방향 논의

IV. 참석자 현황

구성원

소 속 / 직 책	성함	참석 여부	소 속 / 직 책	성함	참석 여부
군 산 시 / 부 시 장	김영민	○	군 산 시 / 경 제 산 업 국 장	황관선	○
군 산 시 / 문 화 관 광 국 장	김문숙	○	군 산 시 의 회 / 의 원	김영란	○
군 산 시 의 회 / 의 원	김영자	×	호 남 대 학 교 / 교 수	이승환	○
전북문화관광재단/관광사업본부장	구혜경	○	호 원 대 학 교 / 교 수	진남수	×
전 주 대 학 교 / 교 수	정태연	○	한국관광공사/ 전북지사장	유한순	○
월명자울상권조합/ 이사장	박미선	○			
비 고	위원 11명 中 9명 참석(2명 불참) / 신규위원 4명 中 3명 참석(1명 불참)				

개 회

군산시 축제위원회 김영민위원장(부시장)의 회의 개최 선포 (16시 개최)

□ 군산시 축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

○ 신규위원 4명 中 3명 회의 참석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

- 참석 : 정태연, 유한순, 박미선 / 불참 : 진남수

□ 인사말씀

○ 김영민 부시장

- 군산시는 관광과 연계하여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입 및 관광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형성이 필요함
-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의 잘된점과 미흡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람

□ 회의내용(사회 : 축제지원계장)

1.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

○ 도시재생과 재생역량계장 결과보고

○ 구혜경 위원

- 주민주도형 축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강점이며, 장점인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 확장이 필요함
- 주민들이 직접만든 작품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이어져 느리게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요함

○ 박미선 위원

-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매년 제작되는 우체통 관리 필요
- ⇒ 재생역량계장 : 사전 참여자 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해 지역작가가 재현하고 있으며 행사장 및 주변에 전시되어 공간 부족문제 발생하지 않았음

○ 이승환 위원

- 만족도 조사결과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, 방문객 동선 및 체험정보가 더욱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

○ 김영란 위원

- 주민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 그늘막 등을 설치해 관람객 편의 제공 필요
- 우체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운영방식과 방향성 재설정 필요

2. 수제맥주 & 블루스 페스티벌

○ 먹거리정책과장 결과보고

○ 유한순 위원

-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축제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유치전략을 사전에 계획해야 함
- 팸투어, 인플루언서 초청 프로그램 및 사전홍보 진행 검토 필요

⇒ 먹거리정책과장 : 향후 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외국인 대상 홍보를 확대하고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음

○ 황관선 위원

-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지방문객 비율을 높여야 하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 (충남)을 타깃으로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함
- 숙박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관광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연계 상품 개발이 필요
- 역사와 연계된 스토리 개발 및 영상 콘텐츠의 개선이 필요함

○ 박미선 위원

- 관광객들이 축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관, 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시스템 필요
- 농가에서 직접 맥아를 재배하여 생산하는 구조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함

○ 정태연 위원

- 축제 명칭 중 블루스 요소가 약하게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자리를 잡아 긍정적
- 우천 중 기상에 대비한 좌석 배치 필요 및 운영시간(종료시간)의 탄력적 조정이 요구되며 음주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 요망

⇒ 먹거리정책과장 :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일부개선이 되었으며, 기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최시기를 조정함. 사전예약 시스템 검토중

○ 이승환 위원

- 관내/관외 관광객 구분을 통해 체류시간을 분석하여 축제효과 파악해야함 (입장권 방식 데이터 확보는 재검토 필요-축제장 외부 업체 사용 등 파악 어려움)

⇒ 먹거리정책과장 : 디지털정보담당관 및 업체협업을 통해 이동경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, 지역상인 민원(매출감소)확인을 위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할 예정

3. 군산콩당보리축제

○ 농촌지원과장 결과보고

○ 정태연 위원

- 다양한 먹거리 구성(디저트 등)을 통해 젊은층 관광객 유입을 도모해야 함
 - 동선의 연결성을 확대하고 야간형 콘텐츠 및 체험형 콘텐츠 강화가 필요함
- ⇒ 농촌지원과장 : 체험부스 공모를 통해 다양화를 모색하였으며, 이동동선상 야자매트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음

○ 유한순 위원

- 콩당보리축제 예산에 포함된 시골마을 축제 예산의 구체적 설명 요구
- ⇒ 농촌지원과장 : 도 공모사업으로 축제 내에서 별도 추진되고 있으며, 컨설팅을 통해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축제에 반영하고 있음

4. 군산시간여행축제

○ 관광진흥과장 결과보고

○ 이승환 위원

- 시 대표축제에 걸맞는 구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함
 - 전년도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이나 체험형(참여형) 콘텐츠가 부족하였으며, 기존의 강점이었던 콘텐츠는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 요구됨
- ⇒ 관광진흥과장 : 새로운 변화를 위해 총감독제 도입하였으나, 기획방향에 따른 공간구성을 하다보니 콘텐츠 밀도가 저하됨(체험 프로그램 감소 등) / 총감독 방식의 완성도를 위해선 예산규모 확대 필요 추가공간 확보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보완하겠음

○ 황관선 위원

- 현재 예산 구조는 총감독제가 적절치 않음
- 퍼레이드 약화 및 축제규모 축소가 위쉬우며 공간 활용성을 높여야 함
- 관람객 유입을 위한 킬러콘텐츠 강화 및 야간 콘텐츠 구성, 조명 및 연출요소를 활용한 현장 분위기 형성이 필요함

⇒ 관광진흥과장 : 총감독제 운영에 따른 한정된 예산의 배분으로 인하여 체험 프로그램 감소 및 공간활용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,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하고자 함

○ 이승환 위원

- 축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인무대 위치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며, 시간대별로 이머시브 공연 프로그램을 구분하면 체류시간 확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

⇒ 축제지원계장 : 전년도 위치는 시야확보 어려움 및 안전상의 문제로 활용가능 좌석이 부족하였으며, 올해는 구시청광장으로 메인무대 이동

○ 구혜경 위원

- 총감독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축제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
- 방문객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함
⇒ 문화관광국장 : 내부전문인력(축제전문인력)을 통해 축제를 설계하겠음

5. 군산짬뽕페스티벌

○ 관광진흥과장 결과보고

○ 이승환 위원

- 군산시간여행축제와 동시개최 및 타지역 축제와의 일정중복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현한 사람이 많음
- 인지도가 형성되고 있고 짬뽕이라는 핵심 콘텐츠 선호 방문객 유입을 위한 일정 분리가 필요하며, 핵심 콘텐츠에 집중한 축제 구성이 필요함
- 0.25인분 구성을 통한 다양한 비교체험과 먹기 대회 등 참여형 콘텐츠 확장 검토

○ 황관선 위원

- 짬뽕페스티벌과 시간여행축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축제장소에 대한 재검토 필요
- 대기시간이 길고 재료가 조기소진되어 불편함을 겪었으며, 상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료수급, 운영시간 등 전반적인 운영방식 보완이 필요함

⇒ 관광진흥과장 : 상인들과 지속 협의중이며, 짬뽕 특화거리와 축제장이 분산되는 문제점 등 전반적인 운영효율 개선을 위해 검토중임

○ 이승환 위원

- 유명업소와 비인기업소간 격차가 발생하였으며, 맛의 차이가 있을 경우 축제 만족도가 저하됨 → 업소별 시그니처는 유지하되 축제장 한정 공통메뉴 개발 건의
- 유명 업소로의 편중에 따른 비인기 업소 만족도가 낮게 인식되는 경우 SNS 특성상 부정적인 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→ 비인기 업소 방문 유도방안 마련
- 블라인드 방식의 요리 경연을 도입하여 비유명업소 홍보를 유도하고 개막식 퍼포먼스와 연계한 축제의 시그니처 콘텐츠로의 발전 도모

○ 유한순 위원

- 짬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축제소재로의 경쟁력 있으나, 특화거리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됨이 아쉬우며, 소비자는 업소에서 직접먹는 경험을 선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(외부명인 초청 등 퍼포먼스를 활용한 짬뽕거리 활성화)

○ 박미선 위원

- 실제 매장이용을 유도하여 인근 업소까지 활성화 하는 방식이 적절하며, 축제 목적에 대한 방향설정 필요 (특화거리 활성화 또는 군산짬뽕 전체 홍보)
- 체류형 관광을 위한 도장깨기 형태 프로그램 도입 검토 요청

○ 구혜경 위원

- 소량·단일용기·균일가격으로 여러종류의 짬뽕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, 간단한 사이드메뉴도 구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함
-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짬뽕의 역사와 배경을 보여주는 스토리를 활용한 공간조성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

□ 폐 회

군산시 축제위원회 문화관광국장(위원장 대리)의 회의 폐회 선포 (18시 폐회)